

# 2019년도 「도서관직원국외연수-1기」 결과 보고(요약)

## □ 연수개요

- (대상) 전국 도서관 사서 및 직원 36명(인솔 지원관 2명 포함)
- (기간) 2019. 5. 12.(일) ~ 5. 20.(월) / 7박 9일
- (연수국가) 네덜란드, 벨기에

- 네덜란드 - School 7, 디오케이 중앙도서관, 델프트 공학 대학교 도서관, 로테르담 도서관
- 벨기에 - 데크루크 도서관, 유토피아(공연예술을 위한 도서관·아카데미), 쿡앤북

## □ 주요성과 및 시사점

- 현장강의 및 견학을 통한 국외 도서관 최신동향파악 및 사서 역량 강화
- 21세기를 접어들면서 유럽의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수 감소 등 도서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용자 중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함
-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 도서관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콘텐츠와 액티비티를 담는 공공 공간으로 일상을 도시로 확장하고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도시의 거실, 소셜 허브임. 더불어 거실처럼 편안한 도서관 공간은 여러 활동의 촉진제(독서, 문화활동, 대화, 학습 등) 역할을 함
  - 지역사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공간
    -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오랜 시간동안 소통하여 환경과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래에도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옛 것과 현재를 잇는 창구이자 지역주민들의 가장 안락하고 편한 ‘도시의 거실’ 기능에 중점을 두었음
- 일상생활의 밀착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 지역주민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기 위해 도서관은 도시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며

색다른 활동(카페, 식당, 수업, 쇼핑몰, 공연장, 법률상담, 결혼식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환

- 반대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외곽에 위치한다하여도 내부 공간, 동선, 건물배치의 유연성 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는 도서관 이용률 증가와 더불어 해당 지역을 다시 살리는 선순환의 역할을 함

: 도서관 증축 → 이용자 증가 → 행정기관의 지원활동 증가(결혼 주례사 상주, 법률상담소 설치 등) → 이용자 증가

-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돌하는 요구(조용함 대비 소음, 질서 대비 혼잡함, 개방 대비 보안 등)들을 조율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건축기법(소음방지 벽지, 방음문 등) 및 도서관 속의 도서관 즉 공간분리, 층별 분리 등을 활용

#### ○ 협업과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기능 확대

-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지역대학과 나노 기술 협업 단체(IMEC)와 협업한 결과, 도서관은 여러 종류의 신기술을 실험하고 도서관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신기술의 베타테스터 역할을 함

#### ○ 모두의 즐거움을 위한 공공의 공간, 도서관

- 방문도서관 인터뷰 내용 中

- School7 “도서관 개관 당시 많은 주민들과 함께 상호 축하를 하였다. 이 도서관을 통해 주민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무척 행복하다”
- 로테르담도서관 “결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행복한 그들을 보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이다”
- 데크루크도서관 “나는 이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행복하고 기쁘다”

- 도서관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개인(이용자, 사서 등)의 즐거움이며 그 즐거움의 가장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그룹은 “사서” 여야 한다는 점의 시사점이 큼

붙임 2019년도 「도서관직원국외연수-1기」 과정 결과보고서 1부.